

「에블린」 거꾸로 읽어보기 -공자와 맹자의 효(孝) 개념을 중심으로

김철수

I. 들어가는 말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청년기의 첫 단편인 「에블린」(“Eveline”)은 더블린에서의 가난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애인과 낯선 나라로의 도피를 계획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의 시도와 실패가 주인공의 흐릿한 상념과 그 사이를 넘나들며 독자에게 그녀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알려주는 화자의 내러티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 밖에서는 아일랜드 풍이 아닌 변칙이는 지붕을 얹은 흰한 집을 지은 “벨파스트에서 온 남자”¹⁾ 의해서 어린 시절의 놀이터를 빼앗기고, 집안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경제권을 빼앗긴 에블린은 이름과 그 성격이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프랭크(Frank)라는 남자에게 마음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이 모든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그녀는 이 땅을 탈출하고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1) James Joyce, *Dubliners: Text and Criticism*,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36.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D로 표기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함.

결국에는 죽은 어머니의 기억이 부과하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낭만적 희망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이처럼 마비의 틀에 갇힌 수동적인 에블린의 상황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껏 극도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빈센트 쉹(Vincent Cheng)은 그녀가 “스스로를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운명에 처한 여성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최악의 원형적인 두려움, 즉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과 다락방 속의 미친 여자가 되어야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다시 새겨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03). 그런가 하면 얼 잉거솔(Earl Ingersoll)은 에블린이 “자신에게 닥친 탈출의 기회를 자기가 아이러닉하게도 스스로 전념하고 있는 또 다른 상처와 상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63)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외부의 세력들로 인하여 그녀는 미지의 세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그냥 햄릿처럼 마비의 시궁창에 빠져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Cheng 102-3). 결국 놀이터를 빼앗기게 된 식민지적 상황과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과거의 기억에 무기력하게 사로잡힌 한 낭만적인 젊은이로서의 에블린은 마치 『율리시스』(*Ulysses*)에서 “역사는 제가 깨어나고자 애쓰는 악몽입니다”(U 2.377)이라고 절규하던 스티븐(Stephen)처럼, 더블린의 마비 상황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 “역사의 악몽”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단편의 주인공 에블린에 대한 이상과 같은 극단적일 정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동양철학의 시선을 통해 뒤집어서 읽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개인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더블린 사람들』 전편에, 더 나아가서는 『율리시스』와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결정론적인 마비의 상황을 동양철학, 특히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위시한 선진유가(先秦儒家) 사상가들의 철학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거꾸로 읽어보고, 개인적인 꿈의 실현이 좌절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다른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시도가 가능한 것은 데렉 애트리지(Derek Attridge)가 주장한 대로 “조이스(Joyce) 읽기의 즐거움이 단일 문장이나 구절의 숨겨진 좋은 구성과 복잡한 암시를 감상하는 소규모의 즐거움으로부터 작품 전체와 혹은 그의 전 저작에 대한 통일성, 또는 그 저작이 그 일부를 이루는 개인적인 혹은 대중적

인 역사와 더불어 구성되는 그의 전 저작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모델을 형성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확장시키는 행위”(3)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의 주장을 빌미 삼아 지극히 다각적인 프리즘을 갖고 있는 조이스의 작품의 성격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건설적인 오독(misreading)의 즐거움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II. 공자와 맹자의 효 개념

한 편으로, 「에블린」의 마비의 흔적 속에서 동양철학의 효(孝)를 찾아보겠다는 본 논문의 의도는 조이스의 전체 저작의 뼈대를 이루는 아일랜드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작가 조이스의 일관적인 의도를 무시한 처사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계획으로서, 한 마디로 조이스 읽기의 역사에 대한 엄청난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친구인 린치(Lynch)에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주장을 근거로 미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던 스티븐(Stephen)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더블린을 관류하는 마비의 주제로 이루어진 열다섯 편의 단편집에서 한 편을 떼어내어,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인식하고(*integritas*), 그 작품을 이루고 있는 구조와 상징들의 조화를 새롭게 관찰한다면(*consonantia*), 그 후에 그 작품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의미(*claritas*)로 되살아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P 212-13).

이제, 필자가 에블린의 마비의 근거가 되는 그 주저함이 그녀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걱정거리, 즉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효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논지를 펼치기 위해 선진 유가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공자와 맹자의 효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자인 번지(樊遲)가 인(仁)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거침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樊遲問仁 子曰 愛人, 『論語』, 「顏淵」 22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중심축으로 하는 공자의 인 사상은 효에서 출발한다. 부모로 인하여 세상

에 나와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의 부양을 통하여 인생과 역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된 자는 부모에 대한 효를 통하여 진정한 사람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공자가 인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한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며(장세호 15), 그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의 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공자는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 『論語』, 「學而」 2章)이라고 역설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자식의 뜻을 보고 돌아가신 뒤에는 그 자식의 행실을 보라. 돌아가신 뒤 삼년 동안 아버지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을 효라 한다.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爲孝矣 (『論語』, 「學而」 11章)

부모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나 자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효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자는 효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기지 마라. 이에 수레를 끌던 번지가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사지내고 예로써 제사지내는 것이다.

孟懿子 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 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論語』, 「爲政」 5)

오늘날 효는 잘 부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개와 말도 모두 길러줌이 있을 수 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구별할 수 있는나?

子游 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論語』, 「爲政」 7)

부모를 섬김에 있어 그 생과 사에 관계없이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물질적 봉양에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부양하는 것이 효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금중현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의 최초의 가능성을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서’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대상을 타인과 세계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인’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305)고 주장한다.

공자의 뒤를 이어 그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확장시킨 사람은 맹자이다. 효가 모든 윤리의 시초가 되는 근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맹자의 효 개념은 공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효는 인간적인 정서나 도리 혹은 규범이 아닌 본래 선한 성품을 타고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性)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윤리로 확장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자와 차이가 있다. 실제로 맹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내 부모를 잘 섬겨서 남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孟子』, 『梁惠王 上』 7章)

요컨대, 맹자에게 있어서 효는 본성이 발현하여 도덕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윤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금중현 306).

맹자는 또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인 요(堯)와 순(舜) 임금 사이의 일화를 통해 효를 실천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 한 영웅의 예를 소개한다.

요임금은 그 아홉 아들과 두 딸로 하여금 백관들을 거느리고, 소·양과 쌀창고를 갖추어 가지고, 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순을 섬기게 하시니, 천하의 선비들이 나아가는 자가 많았다. 요임금은 천하의 민심을 살펴보아 그에게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순은 부모에게 순순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곤궁한 사람이 갈 곳이 없어 하는 것 같이 여겼다.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함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바인데도, 순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없었고, 미색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으나, 그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없었고, 부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온 천하의 부를 차지하였는데도 그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없었고, 귀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천자가 되

고서도 그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기뻐함과 미색, 부와 귀 아무 것도 순의 근심을 풀어주지 못했고, 부모에게 순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그의 근심을 푸는 길이었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색 좋음을 알게 되면 미인을 사랑하고, 처자가 있게 되면 처자를 사랑하고, 벼슬을 하게 되면 임금을 사모하고, 만약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게 되면 마음속이 달아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효는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한다. 나이 오십이 되어서도 부모를 사모한 이를 나는 위대한 순에게서 보았노라.

帝使其子九男二女，百官牛羊倉廩備，以事舜於畎畝之中。天下之士多就之者，帝將胥天下而遷之焉。爲不順於父母，如窮人無所歸。天下之士悅之，人之所欲也，而不足以解憂。好色，人之所欲，妻帝之二女，而不足以解憂。富，人之所欲，富有天下，而不足以解憂。貴，人之所欲，貴爲天子，而不足以解憂。人悅之，好色，富貴，無足以解憂者，惟順於父母，可以解憂。人少，則慕父母。知好色，則慕少艾。有妻子，則慕妻子。仕則慕君，不得於君則熱中。大孝終身慕父母。五十而慕者，予於大舜見之矣。（『孟子』，「萬章上」1章）

자신의 부귀와 영화나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은 아들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순의 효심이 요임금을 감동시켰다는 것이다. 요임금의 감동은 가족들이 자신을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원한을 품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가족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만장이 말했다. 부모가 순에게 곡식 창고를 고치게 해 놓고서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고수는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우물을 파게 해 놓고서는 순이 나오는데 묻어 버렸습니다. 상이 '도군(순)을 덮어버리는 피를 낸은 모두 내 공적이다. 소와 양과 곡식 창고는 부모님 것이고, 방패와 창은 내 것이고, 거문고와 활도 내 것이고,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하련다' 하고, 상이 가서 순의 집에 들어가니, 순이 평상위에 앉아서 거문고를 타고 있으므로 상이 '형이 그림고 궁급하고 답답하여 왔노라' 하고 부끄러워하니, 순이 '이제부터는 이곳의 못 신하들을 네가 내게 와서 다스리라' 고 하셨다니,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은 상이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을 몰랐습니까?

어찌 모르셨겠느냐. 상이 근심하면 그도 또한 근심하시고, 상이 기뻐하면 그도 또한 기뻐하셨다.

萬章曰 父母使舜完廩，捐階，瞽瞍焚廩。使浚井，出，從而揜之。象曰 謨蓋都君咸

我績。牛羊父母，倉廩父母，干戈朕，琴朕，張朕，二嫂使治朕。象往入舜宮，舜在床
 琴。象曰【鬱陶思君爾，忸怩。舜曰【惟茲臣庶，汝其于予治。不識舜不知象之將殺
 己與？曰奚而不知也？象憂亦憂，象喜亦喜。（『孟子』，「萬章 上」1章）

이처럼 비록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예와 공경의 마음
 을 버리지 않고,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정성껏 제를
 지내는 것이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효의 개
 념이다.

맹자가 순임금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효 윤리의
 효과일 것이다. 순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위협하는 존재인 아버지를 결코 원
 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지극한 효를 실천함으로써 선한 본성을 실현해 내게 되
 고, 그 결과 아버지를 교화시킴으로써 죽음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전환시켰
 으며, 타인이었던 요임금로부터 천자의 지위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맹자가 순의 예를 통해 강조한 효 윤리의 효과는 첫째,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효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객관적 현실을 이상적 상황으로 변화시킨다
 는 것이며, 둘째로는 순과 같은 성인군주의 일차적인 조건으로 효를 상정하고, 그
 러한 효야말로 진정한 통치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셋째로는 자신의
 도덕이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는 인간형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김종현 306).

요컨대, 식민지 환경에서 자신의 사회적 불안감을 가족에게서 해소하는 습관
 을 가진 아버지와 이중적 타자의 지위에 시달리다 마침내 광기로 비참한 삶을 마
 감한 어머니는 에블린이라는 젊은 처녀에게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야
 만 하는 역사의 악몽 같은 굴레였지만, 결국 “데레바운 세라운”(D 40)이라는 어머
 니의 뜻모를 중얼거림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 마비의 사슬 안에서 좌절하게 만들
 고 만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지에 따르면, 초점은 자식의 앞길을 막은 죽은 어머
 니의 망령이나, 그러한 망령에 대한 억압적인 기억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
 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에블린의 가련한 처지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식의 발목을 잡은 그 어머니의 유언에 무의
 식적으로나마 순종하는 에블린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마비의 또 다른 이름: 에블린의 효

작품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에블린은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능동적인 여건들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길을 엄습하는 저녁과 콧구멍 속에 이미 더께처럼 쌓여 있는 고약한 천의 냄새, 그리고 자신들의 놀이터를 잃어버린 어떤 남성에게 대한 기억들이 그녀의 물리적, 심리적 상태들을 파고드는 동안에 그녀가 고작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뿐이다(D 36).

피곤에 지쳐 무기력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레이터는 능동적인 표현들을 애써 회피하며 그녀의 수동성을 드러냄으로써 에블린이 스스로의 행동의 주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Yee 34). 그러한 어조는 탈출을 열망하는 에블린의 의식이 자유간접화법으로 표현될 때 적극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새집에 가면, 먼 타국에 가면, 만판이겠지. 그때는 결혼한 신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자기, 에블린이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손하게 대해줄 것이다. 과거 어머니 같은 취급을 받지 않으리라. (D 37)

코델 이(Cordell D. K. Yee)는 여기서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에블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녀의 의식이 비로소 마비의 현실에서 자유로운 미래로 옮겨가면서 일련의 반전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34). 그러나 그러한 반전이 생기기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 온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못살게 굴지 않은데다, 어머니도 살아 있던”(D 36-7) 절대과거에 대한 기억과,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목격하고,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Blessed Margaret Mary Alacoque)가 받은 약속이 쓰인 채색 판화”(D 37)였다.²⁾

물론 마르가리타의 판화는 그녀가 여태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아버지

2)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1647년 6월 22일 프랑스에서 태어나 24세 때인 1671년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 소속 수녀가 되고, 3년 후인 1673년에 가시관과 불꽃으로 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환상 속에서 보고, 그 예수의 성심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지키며 살다가 1690년 43세를 일기로 선종한다. 인터넷 <위키백과> 참조.

친구인 한 신부를 떠올리는 배경으로 사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요소는 완전한 가정이 꾸러져 있던 절대과거와 더불어 “꿈에도 헤어질 줄 몰랐던 이 정든 물건들을 어찌면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D 37)는 그녀의 어렵פות한 기대의 발목을 잡는 최초의 대못이 되는 셈이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온갖 편찬을 견디며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자신에게 떠맡겨진 아이들을 돌보고, 폭력적이며 구두쇠인 아버지를 봉양해야만 하는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떠나는 데 크게 서러울 일이 없는”(D 37) 하나의 굴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블린의 상념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사실은 “어떤 작자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D 37)라는 평판에 대한 부담감이다.

공자는 “젊은이는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먼저 실천하고 남은 시간에는 글을 배워야 한다(弟子入則孝 出則弟 謹以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論語』, 「學而」 6章)고 했는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하여 아버지를 부양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자신의 부덕한 행위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나 조롱을 염려하는 에블린의 의식 속에 그러한 책임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처녀는 집안 살림을 꾸리면서 자신에게 떠맡겨진 아이들을 꼬박꼬박 학교 보내고 일일이 끼니 챙겨 주느라 무진 애를 먹었다. 힘든 일, 힘든 삶이었지만, 막상 이제 곧 손을 떼다고 생각하니 아주 못 살 생활만도 아니었다 싶었다. (D 38)

한 편으로 에블린의 상념 속에 존재하는 갈등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그녀의 열망과 그것을 막는 환경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에 의해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가족 보존에 대한 의무와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 사이의 치열한 대립인 것처럼 보인다.

처녀는 바야흐로 프랭크와 함께 또 다른 삶을 개척할 참이었다. 프랭크는 매우 다정하고 씩씩하고 솔직했다. 처녀는 프랭크의 아내가 되어 자기를 기다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그를 따라 밤배를 타고 멀리 떠날 참이었다. 처녀가 종종 찾아간 한길가의 집에 살고 있던 프랭크를 처음 본 기억은 어쩌도 그리 생생할까. 고작 몇 주일 전 같았다. (D 38)

가사노동과 가족부양의 의무에 시달리던 에블린에게 있어서 프랭크와의 만남은 열악한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였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능동적인 의사표현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어법을 애트리지는 다음과 같이 일인칭으로 바꿔읽기를 시도한다. “나는 프랭크의 아내가 되어 나를 기다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그를 따라 밤배를 타고 멀리 떠날 참이었다”(5). 그러나 바로 뒤 이어서 그는 다시 에블린이 그녀가 쉽게 믿지 못하고 있는 미래를 예행연습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5). 동시에 그는 “프랭크라는 이름 역시 허구의 세계와 이블린의 마음속에는 그저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문학 텍스트 속에서의 그 이름은 그것이 적절한 이름인지 아니면 아이러니컬한 부적절한 이름인지”(8)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에블린이 탈출의 욕망에 사로잡혀 프랭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갈 때, 과거의 화목했던 가족의 추억이 다시 그녀의 의식에 갈등을 불어넣는다.

아버지는 요사이 부쩍 늙어 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이, 앞으로 딸 생각을 많이 하리라. 아버지가 어쩌다 잘해 줄 때도 있었다. 처녀가 하루 내내 몸져누웠던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기도 하고 난롯가에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지 않았던가. 아직 어머니가 살아있던 어느 날엔가는 모두 호스 언덕으로 소풍을 간 적도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웃기려고 어머니의 보닛 모자를 쓰던 일이 기억났다. (D 39)

그러나 그 순간에 들려오는 “거리의 풍금 소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도록 집안 살림을 잘 보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은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보 같은 고집으로 끊임없이 되던던 말인 “테레바운 세라운”이라는 말과 연상되어 에블린을 다시 겁에 질리게 한다(D 40).

처녀는 갑자기 엄습해 오는 공포를 느끼며 일어섰다. 탈출하는 거야! 탈출해야 해! 프랭크가 구해 줄거야. 프랭크가 삶다운 삶을, 잘하면 사랑까지도 줄 거야.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싶었다. 왜 불행해야 한단 말인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프랭크가 품에 끌어안으리라. 품속에 꼭 안아주리라. 구해 주리라. (D 40)

그러나 헤링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에블린의 태도에 대하여 클라이브 하트(Clive Hart)와 버나드 벤스톡(Bernard Benstock)의 의견을 소개하며, 에블린이 프랭크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블린을 떠날 발판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Herring 38). C. H. 피크(C. H. Peake) 역시, 조이스가 사랑과 의무 사이의 간극에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행복을 영웅적으로 희생하는 빅토리아조의 소녀에 대한 주제의 감상성을 일부러 파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에블린은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그녀의 환상 속에서 부차적으로 가볍게 따라붙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22).

요컨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상황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지긋지긋한 가난을 혼자서 견뎌야만 하는 스무 살의 처녀로서, 어쩌다 만나 좋아지게 된 젊은 청년과의 화려한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 잠시 빠져있던 에블린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에 대한 기억에 의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부두에 도착한 에블린은 그때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이 갈등의 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할 바(her duty)를 알려주십사”(D 40) 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피크는 “그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에블린의 내부에는 사랑과 의무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들은 단순히 갈등하는 두려움들 사이의 연약한 투쟁의 관습적인 위장일 뿐”(21)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의 가슴에서 울린 종소리는 그녀에게 자신이 지키기로 약속했던 가정을 버리고 탈출하는 일을 포기할 최종적인 결심을 하게 하는 하나의 에피피니처럼 작용한다.

종소리가 쟁 하고 가슴 위에서 울렸다. 처녀는 청년이 손을 잡아 오는 것을 느꼈다.

“어서!”

세상의 모든 파도가 처녀의 심장 주위에서 곤두박질쳤다. 청년이 처녀를 그 파도 속에 끌어들이려 빠뜨릴 참이었다. 처녀는 양손으로 철제 난간을 움켜잡았다.

“어서!”

안 돼!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처녀의 두 손이 쇠난간을 미친 듯이 꼭 움켜잡았다. 처녀는 파도에 휩싸여 한 마디 고뇌의 비명을 질렀다! (D 40)

종소리의 에피퍼니를 경험한 에블린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그것이 자신을 다시 더블린이라는 먼지 낀 감옥 같은 도시에 가두게 될 창살인 줄도 모르고 그 쇠난간을 잡았다”(Martin 99)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제야 프랭크의 제안과 그와 함께 할 도주로 인해 생기는 변화의 결과가 오히려 자신을 험난한 “파도 속으로 끌어들여 빠뜨릴 것”(D 40)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에블린의 행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하여 “쇠난간을 미친 듯이 꼭 움켜잡고”(D 40) 자신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때인 것이다.

이 시기에 이민을 떠나지 못한 아일랜드의 처녀들은, 마치 「하숙집」(“Boarding House”)의 보브 도란(Bob Doran)이나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꼬마 챠들러(Little Chandler) 등과 같이 동일한 처지에 처한 남성들처럼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되거나 「진흙」(“Clay”)의 마리아 (Maria)처럼 외로운 독신의 상태로 비굴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혹은 또는 “유럽의 흥등가에서의 매춘을 하게 될 운명”(Herring 36)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시니코 여사처럼 죽음에 처하거나,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에블린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중 타자로서의 고통 속에 광기에 억눌려 살다가 한 많은 삶을 마감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많은 평자들이 동의하고, 심지어 조이스 자신도 『더블린 사람들』 전반에 걸쳐서 암시하고 있듯이 에블린 자신 역시 이 도시의 다른 여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청년 쪽으로 향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짐승처럼 맥이 풀려서,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정이나 작별을 고하는 표정이나, 심지어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표정조차 어려 있지 않은 에블린의 얼굴은 혼자만의 자유를 위하여 가정을 버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D 40)이라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한 사람의 순박한 효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링의 주장대로, 이 단편의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어머니가 부탁한 희생적인 삶을 거절할 용기의 부족이며, 조이스는 노라에게 자신과의 애정을

위한 도피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가정의 복지보다 개인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음이 분명한 것(38)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무 살의 처녀가 마비의 중심인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몰랐을 리 없다는 다소 위험한 전제를 가정할 수 있다면, 새롭게 열릴 수도 있는 자신의 미래 앞에서 단호하게 발걸음을 멈춘 에블린의 결심은 생사와 관계없이 부모를 봉양하고 그들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효라고 강조한 공자의 가르침과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가족일 지라도 예와 공경을 다하여 섬기던 순임금의 예를 들며 강조한 맹자의 효의 정신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결론

1903년에 「에블린」의 초고를 완성한 조이스는 1904년 9월 10일에 이 단편을 『아이리쉬 홈스테드』(*The Irish Homestead*)라는 주간 잡지에 그 단편을 연재했다. 이때는 그가 노라를 만난 지 정확히 3개월 되던 때였고, 그해 10월 8일에 그는 작품 속의 프랭크가 실패한 것과는 달리, 그의 애인이었던 노라를 설득하여 유럽으로의 망명에 성공하게 된다. 이 단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조이스 자신의 노라와의 애정을 위한 도피 행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조이스는 자신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딘 노라에게 보여주며, 자신과 함께 도망했던 그녀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보인다(Herring 37).

당시 아일랜드의 상황과 조이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에블린의 마지막 행위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그토록 우려해 왔던 대로, 당시의 모든 아일랜드의 젊은 여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종속과 광기의 굴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결정론적 운명의 희생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 출간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극단적일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의식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의 조명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 이유는, 물론 애초에 조이스의 저작 의도가 식민지의 환경에서 “기꺼이 억압 받으며”(D 42) 부패와 마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린 사람들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배경이자 직접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영국 제국주의의 억압의 실재와 그 비도덕성을 세상에 고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양의 개념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이 단편을 재조명한다면,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인용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미학이론의 개념인 “전체성”과 “조화” 그리고 “광휘”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프레임으로 「에블린」을 재조명하여, 조이스의 전 저작을 관류하는 아일랜드의 마비라는 주제에서 본 단편을 하나의 전체로 떼어낸 다음, 그 작품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동양철학의 “효” 사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의 재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 결과, 여러 가지의 불안감에 의한 에블린의 주저함과 그녀의 좌절을 돌아가신 어머니와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주제적인 책임의식으로 재해석하여, 그녀의 탈출 포기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블린에게 내재되어 있는 효심이 그녀를 설득하여 최종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이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비평가들이 한탄해 마지않았던 그녀의 마비에 대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의식을 비교하였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리하여 그동안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읽혀오던 조이스의 작품에 대하여 새로운 독법을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히 서구적 사고로 쓰여지고 읽혀져 온 텍스트에 동양적 사고를 접목시킴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광휘”를 발하는 작품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대)

Works Cited

- 금중현. 「‘孝’ 사상의 신화적 가공과 국가이념으로의 변천, 그 철학사적 의미—『맹자』와 『효경』에 나타나는 ‘孝’ 개념에 대한 고찰—」. 『중국학 연구』 6 (2013): 297-318.
- 김석환 역주. 『논어』. 서울: 학영사, 2004.
-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http://ko.wikipedia.org/wiki/%EB%A7%88%EB%A5%B4%EA%B0%80%EB%A6%AC%ED%83%80_%EB%A7%88%EB%A6%AC%EC%95%84_%EC%95%8C%EB%9D%BC%EC%BD%94%ED%81%AC. 2014년 1월 3일 last update. 2014년 5월 10일 접속.
- 법선균 역해. 『맹자』. 서울: 혜원출판사, 1997.
- 장세호. 「공자의 효사상」. 『인문학 논총』 28 (2012): 487-508.
- 조이스, 제임스. 이종일 역. 『더블린 사람들』. 서울: 민음사. 2012.
- Attridge, Derek.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NJ: Princeton UP.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Text and Criticism*.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eds. New York: Penguin books, 1996.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Chester G. Anderson, ed.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Vintage, 1986.
- Martin, Donch. “Eveline.” *James Joyce's Dubliners: A Critical Handbook*. Eds. James R. Baker and Thomas F. Stale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69. 96-101.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 Yee, Cordell D. K. *The Word According to James Joyce*. London: Associate UP, 1997.

Abstract

Reading “Eveline” the Other Way Around—Centering on the Concepts of Filial Piety of Confucius and Mencius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read James Joyce’s “Eveline” the other way around through the perspective of ancient Eastern philosophy reconsidering the state of its heroine with the same name, who has long been viewed from extremely negative and frustrating points of view by almost all of the critics.

It attempts to find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collapse of one’s dream through the concept of ‘filial piety’ in the lessons of Confucius and Mencius. For the purpose, three elements of beauty quoted by Stephen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from Thomas Aquinas, namely “*integritas*,” “*consonansia*,” and “*claritas*,” will be appropriated as a framework to reconsider the story of “Eveline.”

That is, the individual story will be detached from its series with its own structure analyzed independently, and then reexamined through the concept of “filial piety” in order to feel out a new way to reinterpret the story.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Eveline’s hesitation and consequent frustration of escape caused by uneasiness at uncertainty about a new experience can be reinterpreted 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promise to her mother, which has been internalized long enough hoping to persuade her to make a decision to keep her family as long as possible without leaving her homeland. Thus Eveline’s paralysis, which has been deplored even by Joyce himself and all the critics so far seems to be eligible for the new name of ‘filial piety.’

■ **Key words** : *Dubliners*, “Eveline,” paralysis, Confucius, Mencius, filial piety
(『더블린 사람들』, 「에블린」, 마비, 공자, 맹자, 효)

논문접수: 2014년 5월 29일

논문심사: 2014년 6월 1일

게재확정: 2014년 6월 26일